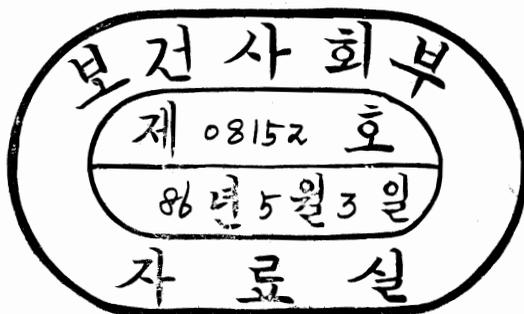


最近 우리나라 海外移民의
特性分析

Handwritten signature



保健社會部
社會保障審議委員會

保健社会部長官

貴下

今年度 調査研究事業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最近 우리나라
海外移民의 特性分析” 이란 題下로 報告하 나이다.

1975.10

社会保障審議委員會

参事 金 玄 操

1998年12月15日

1998年12月15日

1998年12月15日

1998年12月15日

1998年12月15日

目 次

1. 問題의 背景	5
2. 調査対象 및 方法	7
3. 移住形態別 特徴	9
1) 契約移民 招請移民(美国, 캐나다)	13
2) 国際結婚	34
3) 国際入養	44
4. 結 言	47



1. 問題의 背景

우리나라의 경우 人口의 國際移動은 그 量이나 性格에 있어서 移入(immigration) 보다는 移出(emigration)이 더욱 重要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移入은 量도 적거니와 그것이 우리나라 全体社會에 미치는 影響도 微細한 反面, 移出은 그 量도 많거니와 그것이 全体社會에 미치는 影響이 더욱 크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人口海外移出의 量과 性格은 時代的 狀況에 따라 變遷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李朝末葉(1880年代) 開國과 더불어 나라의 門戶가 開放되기는 하였지만, 當時 國內外情勢나 韓 國人的 思考方式으로 보아 人口의 海外移出(emigration)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但 滿洲地方은 歷史적으로 密接한 關聯이 있기 때문에 相當數의 韓國人이 移住하였으리라고 생각되지만, 明確한 資料는 없다) 海外移民의 量이 많아지고 그 影響을 重視하게 된 것은 1910年 韓日合邦以後이다. 日帝時代 末期인 1945年 現在 韓國人의 海外移出은 滿洲地方이 160萬人, 日本이 210萬人, 中國本土 10萬人, 蘇聯邦 20萬人, 美洲 및 其他地域이 3萬으로 合計 約400萬人이었으며, 이는 國內居住人口의 約 $\frac{1}{8}$ 에 該當되었다. (1)

이와 같은 人口의 海外移出은 主로 日本의 植民地政策의 一環으로서 獎勵 或은 強行된 것이었다. 따라서 移民(emigrants)은 主로 徵兵 및 徵用에 強制로 끌려간 사람과 國內에서 生活根拠를

(1) 金 哲：韓國의 人口と 經濟，岩波書店，1915

있고 새로운 生活手段이나 雇傭機會를 찾아 움직일 수 있는 流民의 性格을 띤 사람이 많았으며, 部分的으로 進取的인 思考方式을 가진 사람, 日帝의 支配에 反感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海外移民中 1945年 解放과 더불어 帰還한 同胞는 約 220萬으로 推算되고 있다. (2)

解放以後 海外移民은 主로 個人招請에 依한 移民, 國際結婚 및 國際人養에 依한 移民이 主要한 形態였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個人이 自由로운 選擇決定에 依한 것이었다. 大韓民國政府樹立後, 海外移民業務는 外務部에서 取扱하였으나, 이에 關한 統計의 未備로 移出入口 (emigrants)의 量과 性格에 關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國內人口構造에 큰 變動을 招來할 程度로 많은 量이 아니었음은 分明하다. 海外移民關係法令이 制定되고 移民業務를 全的으로 管掌하는 部署가 생긴 것은 第三共和國樹立以後의 일이다. 政府와 移民交涉團體의 積極推進으로 最近 人口의 海外移出은 量的으로 매우 增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海外移民의 性格에 關한 糾明이 거의 없었으므로, 本稿에서는 部分的으로나마 그 性格을 지난 10年前의 統計資料와 比較 檢討하려고 試圖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本研究를 爲한 資料蒐集에 모든 便宜를 提供해준 保社部 移民課 職員諸位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2) I.L.O : International Migration, Geneva, 1959.P.124

2. 調査対象 및 方法

1) 調査対象

題目이 明示하는 바와 같이 本稿는 主로 1965年度와 1974年度의 移民実績을 比較함으로써 其間의 特性을 考察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調査의 對象이 된 것은 1965年度 一年間과 1974年度 一年間 保社部移民課에서 海外移住가 許可된 사람중 1965年 12月 31日 現在와 1974年 12月 31日 現在 및 出国하지 않은 것이 確實한 사람들(基督教系統의 交渉団체에 依한 移民)을 除外한 全數(1965年)과 無作為抽出한 2,624名(1974年)이다. 基督教移民以外에도 1965年과 1974년에 移住가 許可된 사람중에는 12月 31日까지 出国하지 않은 사람, 다음 年度에 出国했거나 出国豫定으로 있는 사람, 或은 出国을 拋棄한 사람들이 包含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 現況把握이 困難하므로 移住가 許可된 사람은 移民으로 看做하였다. 따라서 實際로 1965年과 1974年 一年 동안에 移住를 위하여 出国한 數 即 移民実績과는 差異가 있을 수 있지만 海外移民의 性格(諸特徵)을 밝히는 데는 큰 影響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本稿가 主로 1965年度와 1974年度의 実績을 中心으로 하였지만 그 性格에 있어서는 어느 程度 最近(第三共和國樹立後) 海外移民의 그것을 代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移民形態別 調査對象者數는 다음과 같다.

1965年度

契約移民	1,546名
招請移民	714名
國際結婚	1,617名
入 養	792名

1974年度

美国移民	1,408名
카나다移民	729名
國際結婚	487名

2) 調査方法

앞에서 밝힌 対象者를 모두 調査하기 爲해서는 現實的으로 여러가지 難關이 많다. 対象者中에는 이미 出国한 사람이 많으므로 調査가 그 以前에 實施되지 않는 限, 質問書나 面接을 通해서 資料를 蒐集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対象者全員이 保社部移民課에 移住許可申請을 할 때 提出한 書類(移住許可申請書, 戶籍謄本, 理由書等)를 中心으로 調査하였다. (Documentary Research) 따라서 出生地와 家族順位를 除外한 모든 調査項目은 移住者の 書類上 報告에만 依存하였으며, 出生地와 家族順位는 移住 希望者가 提出한 戶籍謄本을 通해서 調査하였다. 그리고 当初 設計된 調査項目은 다음에 살펴 볼 内容보다 더 많았으나 利用可能한 資料의 制限으로 調査가 不可能한 項目은 除外되었다.

3. 移住形態別特徵

海外移住法(62.3.9公布)에 依하면 移住의 種類를 集團移住, 契約移住, 特殊移住의 3가지로 区分하고 各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集團移住: 우리나라 政府와 住対象국과의 交渉에 依하여 行하는 集團의 移民의 移住

契約移住: 移住에 關한 業務를 取扱하는 團體가 移住対象國內에 있는 移住에 關한 業務를 取扱하는 團體와의 契約에 依하여 行하는 移民의 移住

特殊移住: 外國의 政府 團體 또는 個人의 招請에 依하여 當該 外國에 三年以上 居住하게 되는 個人(留學을 目的으로 하는 者는 除外)과 그 家族의 移住나 入養 또는 結婚 등으로 因하여 移住하게 되는 者의 移住

그러나 1962年以後 實施된 移民中 集團移住에 屬하는 移民은 없었으며, 契約移住와 特殊移住中 招請移民, 國際結婚, 入養等 4가지 形態가 支配的이었다. 1962년부터 1975年 6月30日 現在 國別 移住実績과 種類別移住実績, 職業別移住実績은 아래와 같다. (3)

(3) 保健社會部 移民課統計

국 별 이 주 실 적

1975. 6. 30 현재

구 별	년도별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계	188,155	2,922	3,749	4,774	3,697	3,924	5,795	9,165	16,207	18,627	25,651	33,537	41,154	18,566	
브 라 질	170	462	604	722	365	68	306	866	1,776	1,290	2,029	166	181	78	
아르헨티나	-	1	2	169	6	2	42	148	797	591	153	194	134	78	
파라과이	-	-	-	1,223	273	121	47	75	53	7	83	199	707	910	
보리비아	-	13	302	282	104	1	8	1	8	3	69	34	74	81	
미 국	210	2,036	2,179	2,294	2,744	2,978	4,225	6,804	11,518	14,400	19,659	28,802	33,909	14,172	
카 나 다	2	9	40	20	87	508	786	742	991	864	977	1,529	3,195	1,902	
독 서	-	385	565	13	1	4	2	4	104	9	76	151	169	50	
불 란 서	1	-	-	-	-	-	7	47	61	222	121	182	140	62	
스 웨 덴	-	4	6	14	89	138	218	208	269	434	651	692	574	255	
블 웨 이	-	-	14	31	1	61	50	42	93	215	180	251	379	83	
스 위 스	-	-	-	-	-	1	23	82	72	4	67	125	203	120	
비 올 민	-	5	5	4	15	21	12	6	4	9	2	6	1	-	
기 타	4	7	32	2	12	21	69	140	461	579	984	1,206	1,488	775	

종 류 별 이 주 실 적

1975.6.30 현재

<表2>

종류별 년도별	1975.6.30 현재															
	계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계	188,155	387	2,922	3,749	4,774	3,697	3,924	5,795	9,165	16,207	18,627	25,651	33,537	41,154	18,566	
계약이주	3,973	170	315	675	1,791	611	-	6	22	205	30	107	37	4	-	
초청이주	118,751	51	844	1,117	551	765	1,564	2,277	4,979	9,945	10,696	17,210	23,373	31,261	14,118	
국제결혼	36,948	159	1,455	1,992	1,748	1,585	1,624	2,310	2,608	3,808	4,895	4,483	4,791	4,220	1,870	
국제입양	28,483	7	308	565	684	736	736	1,202	1,556	2,249	3,006	3,851	5,336	5,669	2,578	

<表 3 >

직업별, 성별 이주 현황

1975.6.30 현재

직업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계	성별	계	성별	계	성별	계	성별	계	성별	계	성별					
계	24,793	16,957	7,836	984	490	2,026	815	2,225	812	3,032	1,185	3,828	1,878	3,172	1,737	1,333	764
의사	2,036	1,761	275	139	13	294	47	129	30	435	50	374	70	253	35	120	23
치과의사	121	116	5	3	2	13	-	23	1	14	1	34	1	21	-	7	-
간호원	4,070	18,405	1	196	-	311	-	359	13	622	4	1,244	-	860	-	397	-
약사	1,454	711	743	19	24	32	39	90	73	180	204	221	213	107	112	56	74
의료보조원	215	122	93	12	4	-	33	14	31	36	35	30	4	5	3	4	4
교육자	425	312	113	16	1	20	9	21	6	31	6	81	25	83	32	57	28
과학자	28	23	5	3	2	10	1	6	2	-	-	-	-	1	-	3	-
정비사	2,637	2,634	3	41	-	51	-	155	-	378	2	984	1	770	-	211	-
전기요원	1,096	1,091	5	189	1	438	2	172	1	98	-	108	1	64	-	20	-
건축요원	241	238	3	13	-	47	-	56	-	45	2	33	1	24	-	16	-
광업	89	87	2	29	1	17	-	3	-	19	-	9	-	4	-	6	1
농업	282	266	16	14	-	32	1	22	1	57	1	35	-	41	3	54	10
상업	1,977	1,760	217	51	24	101	47	180	40	505	31	444	23	272	34	135	12
단순노무자	4,101	3,197	904	250	126	543	194	742	139	779	130	432	86	361	182	36	12
기타	6,021	4,621	1,400	204	96	428	164	593	146	447	100	1,034	183	1,167	474	609	203

表1, 表2, 表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国別移住実績은 美国 캐나다移民의 數는 해마다 增加하고 있고, 種類別移住実績을 보면 招請移民, 國際入養, 國際結婚의 數도 每年 增加하고 있으며 特別職業別移住実績을 보면 技術職從事者들의 移民이 顯著히 激增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1965年度와 1974年度実績(移住가 許可된 者)을 中心으로 各形態別特徵을 살펴 보고자 한다.

i) 契約移民·招請移民

앞에서 본 移民法の 規定에 依하면 契約移民과 招請移民은 그 性格에 있어서 嚴然히 區別되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兩者間에 큰 差異가 없다. 表에서 美国, 西独, 캐나다, 伊太利에서의 招請移民(總 115名)은 移民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招請移民에 該當되지만⁽⁴⁾ 大多數를 占하고 있는 Paraguay, Bolivia, Brazil에서의 招請移民은(總 599名) 招請이란 名稱이 붙었을 뿐 契約移民과 性格上差異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招請者는 이미 가 있는 僑胞들이거나 그들의 영향력이 미친 移民交渉団体들로서 移動目的이나 移動樣式(家口移動)에 있어서 契約移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形態(契約·招請)의 移民을 同時에 살펴보고, 1974年度는 美国移民, 캐나다移民으로 불려 한다.

(4) 招請移民의 招請者는 外國에 가 있는 父母나 家族, 親戚, 親知의 招請이 大部分이고, 外國의 団体나 個人의 招請은 小數임.

가) 性別 및 年齡別構成

<表 4> 1965年度 年齡別構成

年 齡	全國人口의 年齡別 構成比 ⊗	契 約 移 民		招 請 移 民	
		人 員	%	人 員	%
0 ~ 4	13.86	105	6.79	70	9.80
5 ~ 9	16.08	226	14.62	94	13.17
10 ~ 14	12.30	215	13.91	83	11.63
15 ~ 19	9.77	208	13.45	75	10.50
20 ~ 24	7.77	179	11.58	79	11.07
25 ~ 29	7.59	100	6.47	78	10.92
30 ~ 34	6.65	82	5.30	43	6.02
35 ~ 39	5.52	89	5.76	45	6.30
40 ~ 44	4.73	103	6.66	34	4.76
45 ~ 49	3.95	106	6.86	46	6.44
50 ~ 54	3.28	52	3.36	24	3.36
55 ~ 59	2.91	32	2.07	25	3.50
60 以上	5.59	49	3.17	18	2.52
計	100	1,546	100	714	100

⊗ 1965年度 年末常住人口 報告에 依함

1965年年末常住人口에 依하면 全国人口의 性比는 100.39 인데, 契約移民과 招請移民의 性比도 各各 126.02, 105.76 으로 男子가 더 많다. 이는 国内移動人口의 性比 89 에 비추어⁽⁵⁾ 对照的인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表4에서 移民의 年齡構成을 全国의 그것과 比較해보면, 契約移民과 招請移民의 경우에 있어서는 0~9 歲人口와 60 歲以上人口의 比重이 작고, 反對로 15~60 歲人口의 比重이 大体로 큰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가지 移民中에 經濟活動을 할 수 있는 年齡層의 人口가 많이 包含되어 있음을 意味한다. 그러나 移民의 年齡計算은 1965年 12月31日 現在 滿으로 算出한 것을 考慮해야 한다.

(5) 「우리나라 国内人口 移動에 關한 研究, 安啓春 論文에 依함.

<表 5 >

1974 年度 年 齡 別 構 成
Age Composition

年 齡 Age	全國人口의 年 齡 別 構 成 比 ⊗ Whole Country	美 國 移 民		카 나 다 移 民	
		人 員	%	人 員	%
0 ~ 4	11.96	102	7.24	81	11.11
5 ~ 9	12.41	183	13.00	69	9.47
10 ~ 14	13.60	150	10.05	58	7.76
15 ~ 19	12.38	145	10.30	45	6.17
20 ~ 24	8.66	134	9.52	57	7.82
25 ~ 29	7.09	192	13.64	140	19.20
30 ~ 34	6.57	156	11.08	102	13.99
35 ~ 39	6.20	113	8.03	58	7.96
40 ~ 44	5.03	71	5.04	28	3.84
45 ~ 49	4.03	53	3.76	15	2.06
50 ~ 54	3.53	33	2.34	7	0.96
55 ~ 59	2.73	25	1.78	17	2.33
60 以 上	5.81	51	3.62	52	7.13
計	100	1,408	100	729	100

⊗ 1974年 年 齡 階 層 別 推 計 , EPB

한편 1974年度 年 齡 別 構 成 을 經 濟 企 劃 院 의 1974年 年 齡 階 層 別 推 計 值 에 依 해 보 면 全 國 年 齡 人 口 構 成 比 와 對 比 하 여 보 면 美 國 移 民 , 카 나 다 移 民 은 0 ~ 14 歲 의 非 經 濟 人 口 가 적 은 反 面 15 ~ 19 歲 의 經 濟 活 動 人 口 의 比 重 이 纔 鮮 큼 을 알 수 있다.

4) 出生地別 分布

<表6> 1965年度 出生地別分布

出 生 地	契 約 移 民				招 請 移 民			
	家 口 主		家 口 員		家 口 主		家 口 員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서울	11	5.14	524	33.89	3	2.59	236	33.06
京畿	27	12.62	193	12.48	10	8.62	47	6.58
忠北	1	0.47	10	0.65	0	0	16	2.24
忠南	13	6.07	70	4.53	1	0.86	25	3.50
全北	1	0.47	12	0.78	2	1.72	16	2.24
全南	0	0	10	0.65	1	0.86	8	1.12
慶北	13	6.07	96	6.21	7	6.03	62	8.68
慶南	12	5.61	183	11.84	3	2.59	58	8.12
江原	7	3.27	41	2.65	2	1.72	10	1.40
濟州	0	0	4	0.26	0	0	1	0.14
咸北	2	0.93	3	0.19	3	2.59	12	1.68
咸南	15	7.01	47	3.04	12	10.34	25	3.50
平北	31	14.49	104	6.73	17	14.66	41	5.74
平南	55	25.70	175	11.32	41	35.34	114	15.97
黄海	22	10.28	64	4.14	13	11.21	39	5.46
外国	4	1.87	10	0.65	1	0.86	4	0.56
計	214	100	1,546	100	116	100	714	100

이미 밝힌 바와 같이 出生地는 戶籍謄本으로부터 確認한 것이므로 매우 正確한 資料라고 생각된다. 出生地는 世帶主와 家口員을 別途로 調査하였다. 表 6에서 世帶主의 出生地를 보면, 契約移民이나 招請移民이나 모두 北韓出身者가 圧倒的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各各 全体의 74.14%, 58.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北韓 出生人口가 ①進取的인 思考方式을 갖고 있다는 점 ②南韓 出生人口에 比하여 家族的인 紐帶를 비롯하여 個人의 行動을 制約하는 여러가지 紐帶가 덜 作用한다는 점 ③戰爭의 쓰라림을 몸소 體驗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不安한 現實로부터 逃避하려는 傾向이 클 것이라는 점 등에 原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家口員의 出生地를 보면 두가지 경우 모두 서울이 많고 京畿, 平南, 慶北, 慶南, 이 比較的 많은 편이나 出生地가 北韓인 世帶主들이 서울에 特히 많이 居住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出生地인 家口員이 많다.

1965年의 資料와 比較하여 보면 美國移民이나 캐나다移民이 캐나다移民 모두가 서울이 各各 46.24%, 45.40%이고 경기가 15.13%, 10.84로 他道出生보다 훨씬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 出身者들이 주로 서울에서 基盤을 잡고 있음을 思料할 수 있다. ※

※ 以北 五道庁의 資料에 依함.

<表7>

1974年度 出生地別分布

出生地	美国移民		カナダ移民	
	人員	%	人員	%
서울	651	46.24	331	45.40
京畿	213	15.13	79	10.84
忠北	39	2.77	17	2.33
忠南	90	6.39	33	4.53
全北	56	3.98	28	3.84
全南	71	5.04	38	5.21
慶北	90	6.39	35	4.80
慶南	96	6.82	53	7.27
江原	25	1.78	21	2.88
濟州	-	-	2	0.27
咸北	4	0.28	1	0.14
咸南	21	1.49	16	2.19
平北	17	1.21	23	3.16
平南	24	1.70	36	4.94
黄海	8	0.57	16	2.19
外国	3	0.21	-	-

다) 現住所別分布

表 8. 1965年度 現住所別分布

道 別	契 約 移 民		招 請 移 民	
	人 員	%	人 員	%
서 울	1,066	68.95	549	76.75
京畿	156	10.09	24	3.36
忠北	0	0	2	0.14
忠南	20	1.29	25	3.50
全北	0	0	0	0
全南	0	0	0	0
慶北	77	4.98	49	6.86
慶南	227	14.68	58	8.12
江原	0	0	9	1.26
濟州	0	0	0	0
計	1,546	100	714	100

<表9>

現住所別分布

1974年度 Distribution by Place of Residence

道 別 Province	美 国 移 民		카 나 다 移 民	
	人 員	%	人 員	%
서울	998	70.38	551	75.58
京畿	248	17.61	60	8.23
忠北	3	0.21	7	0.96
忠南	34	2.41	9	1.23
全北	20	1.42	6	0.82
全南	12	0.85	22	3.12
慶北	37	2.63	29	3.98
慶南	40	2.84	38	5.21
江原	11	0.78	7	0.96
濟州	5	0.36	-	-
計	1,408	100	729	100

契約移民과 招請移民의 現住所別分布 (表8)를 보고 1974年の 表9를 보면 서울이 圧倒적으로 많고 京畿 慶南, 慶北이 많은 편이다 이는 所謂 四大都市의 分布와 一致하는바, 實際로 居住地를 보면 거의 全部가 (100% 가까와서 統計를 따로 낼 必要조차 없었음) 都市居住者이다.

慶南은 釜山을 비롯한 其他 都市居住者가 많고, 京畿는 仁川, 水源 議政府 등의 都市居住者이고, 慶北은 大邱를 비롯한 都市居住者이며, 其他 道에 있어서도 모두 그 道의 都市居住者이다 이와 같이 都市居住者가 많은 것은 都市가 海外移民에 관한 情報과 諸般手續에 有利한 地理的 位置에 놓여 있다는 점에도 原因이 있겠지만 이보다는 都市와 農村의 社會經濟的 諸般與件의 差異에 基因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都市人口는 農村人口에 比해서 教育程度도 높고 思考方式도 開放的이고 合理的이며, 移民에 必要한 經濟的 餘裕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移動에 더욱 敏感하다고 볼 수 있다.

라) 目的地別 分布

<表 10> 1965年度 目的地別 分布

道 別	契 約 移 民		招 請 移 民	
	人 員	%	人 員	%
미 국	-	-	82	11.48
브 라 질	604	39.07	13	1.82
파 라 과 이	942	60.93	295	41.32
볼 리 비 아	-	-	291	40.76
서 독	-	-	12	1.68
카 나 다	-	-	20	2.80
이 태 리	-	-	1	0.14
계	1,546	100	714	100

〈表11〉	美国移民	1,408名
	카나다移民	729名

契約移民과 招請移民, 美国移民, 카나다移民의 目的地別分布를 보면 表10, 表11과 같다. 移民의 大多数는 南美洲의 諸国家 卽 Brazil, Paraguay, Bolivia로 가는 사람들이다 人口密度가 희박하고 資源開發의 餘地가 많은 国家들로서 政策的으로 人口의 移人을 許容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Paraguay와 Bolivia의 招請移民은 手統의 채널(Channel)이 다를 뿐이지 性格上 契約移民과 類似하다는 것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特히 近年에 와서는 美国, 카나다가 移民의 大趨勢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顯著한 特性으로 나타나고 있다는점 이다.

마) 職業構成

海外移住許可申請書에는 移住者全体에 對해서 職業을

表12 1965年度 職業構成

職 業	契 約 移 民		招 請 移 民	
	人 員	%	農 業	%
農業(林蓄)	82	38.32	38	32.76
商 業	48	22.43	30	25.86
工 業	9	4.21	7	6.03
事 務 職	33	15.42	8	6.90
技 術 職	10	4.67	5	4.31
社 会 事 業	2	0.93	2	1.72
無 職	19	8.88	23	19.83
無 應 答	11	5.14	3	2.59
計	214	100	116	100

表 13

1974年度 職業構成

職 業	美 国 移 民		카나다 移 民	
	人 員	%	人 員	%
農 (林 . 蓄)	10	0.71	11	1.51
商 業	54	3.84	9	1.23
工 業	12	0.85	11	1.51
事 務 職	134	9.52	111	15.23
技術職 (医 師)	62	4.40	176	10.43
社 会 事 業 (看 護 員 , 牧 師)	17	1.21	14	1.92
教 職	30	2.13	24	3.29
学 生	368	26.14	116	15.91
学 令 未 達				
無 職	721	51.20	357	48.97
計	1,408	100	729	100

記人하도록 되어 있으나 1965年度の世帯主以外の
 移住者の職業은 無職인 경우가 많고 記錄이 되지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職業을 調査한다는 것은 無意味할 뿐만 아니라 調査가
 困難하였다. 世帯主의 職業은 大体로 記入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家族의 移住決定은 世帯主의 意思에 크게 左右되는 것이므로 世帯

主의 職業만을 보는 것이 더욱 興味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世帯主의 職業構成은 表12, 表13과 같다. 職業이 具體적으로 記入되지 않아서 一般적으로 通用되고 있는 職業分類 (Census 에서의 分類)는 할 수 없었고 移住許可申請書에 記入된 職業의 몇개의 카테고리도 分類하였다.

農業은 林業과 畜産을 包含시켰으며, 事務職은 公務員, 社員, 教師 牧師, 辯護士 등을 包含시켰고, 技術職은 醫師, 마취사 運送士 등을 包含시켰다. (1965年度) 1974年度는 1964年度の 分類와 약간 달리 分類한 것은 敎職을 別道로 취급 하였으며 社會事業에 看護員 牧師를 包含시켰으며 學生을 하나의 職業分類에 包含시킨 것과 學未達者도 職業分類에 包含시킨 것이다. 따라서 商業이라고 記入한 사람과 社員이라고 記入한 사람의 實際職業에 있어서의 差異는 分明치 않으며 工業과 技術者와의 差異도 마찬가지 이다. 職業別 分布는 1965年度를 보면 두가지 경우 (契約移民과 招請移民) 모두 農業과 商業이 가장 많고 事務職과 無職이 比較的 많다 그러나 農業이 많은 것은 現在 農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보아도 前職이 크게 作用한 것이 틀림없다. 移住對象國의 入國條件이 入國後 3年間은 義務적으로 農業에 從事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條件에 有利하게 하기 위하여 職業을 農業으로 報告한 것으로 생각된다. 現住所別 分布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移民의 大部分이 都市에 居住하는 사람들이었는데, 都市居住者들 中 農業에 從事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職業을 記入

하지 않은 사람은 無職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無職의 比重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는 職業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現實的인 不滿의 突破口를 海外移住에서 찾고자 하는 一面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明確한 統計的證據는 없지만 關係職員의 見解에 依하면, 移民中에는 現實的으로 移住할 程度의 經濟的餘裕를 가지고 있지만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地位 卽, Status-Aspiration을 얻지 못하여 現實에 對한 不滿이 있는 사람들의 所謂 逃避性移民이 많을 뿐 아니라 貴族移民도 많다는 評 判을 듣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1974年度의 職業別分布를 보면 1965年度와는 달리 美國移民에는 學生이 가장 많고 事務職 商業順으로 樣相이 달라지고 있으며 캐나다移民에는 技術職이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캐나다政府의 技術系人口의 吸收策의 一環이라 볼 수 있겠다.

(四) 教育程度

表14 1965年 教育程度

教育程度	契約移民		招請移民	
	人員	%	人員	%
無學	272	17.59(4.95)	142	19.89(4.82)
國在(退)	268	17.34	106(4)	14.85
國卒	196	12.68	95	13.31
中右(退)	100(7)	6.47	43(6)	6.02
中卒	59	3.82	43	6.02
高在(退)	122(11)	7.89	38(7)	5.32
高卒	241	15.59	110	15.41
專門卒(退)	23(4)	1.49	9(1)	1.26
大在(退)	126(42)	8.15	55(24)	7.70
大卒	113	7.31	53	7.42
大学院卒(在)	2(1)	0.13	6(1)	0.84
無應答	24	1.55	14	1.96
計	1,546	100	714	100

<표 15>

教 育 程 度

1974 年度

教育程度	美 国 移 民		캐나다 移 民	
	人 員	%	人 員	%
学 年 未 達	230	15.53	126	17.28
無 学	49	3.48	26	3.57
国 在 (中 退)	174	12.36	59	8.09
国 卒	134	9.52	48	6.58
中 在 (退)	90	6.39	30	4.12
中 卒	106	7.53	46	6.31
高 在 (退)	83	5.89	17	2.33
高 卒	289	20.53	196	26.89
專 門 卒 (退)	12	0.85	8	1.10
大 在 (退)	69	4.90	26	3.57
大 卒	170	12.07	139	19.07
大 学 院 卒 (退)	7	0.50	8	1.10
計	1,408	100	729	100

教育程度 亦是 証憑書類도 없이 全的으로 移住者의 書類上報告에 依存한 것이므로 實際보다 높게 報告하는 一般的인 傾向이 여기서 도 作用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點을 勘案한다 하더라도

移民의 教育水準은 우리나라 全體水準보다 매우 높은것을 알 수 있다.

1965年度教育水準을 보면 無學의 경우를 보더라도 契約移民과 招請移民에 있어서 滿6歲以下의 兒童數를 除外한다면 그 比率이 4.95, 4.82%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 全體水準을 훨씬 上廻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高校卒業者, 大學在學 및 卒業者의 比率이 매우 높다. 全體적으로 보아 教育水準이 매우 높은 人口層이 移民으로 流出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特히 1974年度의 移民의 學歷은 1965年度보다 더욱 높은 水準을 示顯하고 있음은 統計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 家族關係

<表 16 >

家口員數別 家口數

1965年度

家口員數	全 國		契約移民		招請移民	
	家口數	%	家口數	%	家口數	%
1 人	100,168	2.30	-	-	-	-
2 人	309,335	7.09	3	1.4	12	10.34
3 人	513,937	11.78	10	4.67	20	17.24
4 人	641,855	14.72	4	1.87	11	9.48
5 人	693,734	15.91	25	11.68	19	16.38
6 人	666,755	15.29	43	20.09	17	14.66
7 人	555,252	12.73	30	14.02	15	12.93
8 人	387,655	8.89	50	23.37	12	10.34
9 人	233,232	5.35	21	9.81	4	3.45
10 人	128,921	5.95	28	13.08	6	5.17
計	4,361,424	100	214	100	116	100

⊗ 全國値는 1960年 Census 報告에 依한것임.

<表17>

家口員數別家口數

1974年度

家口員數	全 國 ⊗		美 國 移 民		카나다 移 民	
	家口數	%	家口數	%	家口數	%
1 人	-	-	214	40.33	204	56.82
2 人	539,224	9.67	80	15.04	48	13.37
3 人	740,763	13.28	66	12.41	40	11.14
4 人	866,170	15.55	77	14.47	38	10.58
5 人	987,511	17.71	61	11.47	21	5.85
6 人	944,278	16.93	20	3.76	5	1.39
7 人	712,163	12.77	9	1.69	2	0.56
8 人	425,408	7.63	5	0.83	1	0.29
9 人	210,912	3.78	-	-	-	-
10 人	100,560	1.80	-	-	-	-
10人以上	49,288	0.88	-	-	-	-
計	5,576,277	100	532	100	359	100

⊗ 1970年度 Census 報告에 依함

家族의 規模는 海外移住와 어느 程度 關聯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65年度 招請移民과 契約移民의 家口員數別 家口數를 보면 表16과 같다. 家族(Family)는 社會學的 意味를 가지며 家口(Household)는 經濟學的 意味를 가져 嚴格한 意味에서 区分되지만 여기서는 同一視하였으며 同一移住申請書에 記錄된 사람들을 한 家口로

看做하였다. 그리고 1974年度の 移民家口는 全国家口數에 對한 契約移民 招請移民 代身에 美国移民, 캐나다移民別로 그 構成比를 算出하였다 (表 17)

一般的으로 移民의 家口는 小規模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契約移民의 경우를 보면 그 家口의 規模가 全國의 水準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血緣關係나 其他 親分이 있는 2個의 家口가 同一 申請書에 記錄된 例가 많고, 移住를 爲한 入養(入養日時로 보아 移住를 爲한 入養으로 볼 수 있었음)이 屢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契約移民의 경우 移住者의 實際 家口規模도 적어도 全國水準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招請移民의 경우에도 2人家口, 3人家口, 4人家口가 全國水準과 差異가 深할 뿐이며, 全體的으로 全國水準과 큰 差異가 없다.

이는 Paraguay와 Bolivia의 招請移民을 除外한 其他國의 招請移民中에 小數單位의 移動이 많기 때문이다.

平均家口員數를 보아도 全國의 경우는 5.2人이고, ⑧契約移民과 招請移民의 경우에는 各各 7.0, 5.3人으로서 契約移民은 全國보다 2人이 많고, 招請移民은 全國水準과 비슷하다.

그러나 特異한 樣相을 보이는 것은 1974年度の 美国移民과 캐나다移民이다. 表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獨移民이 美国에 40.33%, 캐나다에 56.82%를 示顯하고 있는 것은 1次的으로 혼자 移民하여 生活基盤을 마련한 後에 家族을 데려갈 意圖가 있

⑧ 1970年度 센서스 報告에 依함

음을 알 수 있다 特히 2人家口가 全國値에 比해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移民의 形態가 小規模의 特性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3人家口, 4人家口와 같은 核家族的 移民도 亦是 1974年度移民에서 如實히 높은 比率을 보이는 것은 上記한 特性을 反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人家口以上の 移民은 全國水準에 훨씬 未達하고 있다.

2) 國際結婚

歷史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異民族과의 結婚에 關해서는 明確한 資料가 없지만 그 數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것 같지는 않으며, 部分的으로 異民族과의 結婚이 있었다해도 그것은 個人的 自由意思에 依한 것이라기보다 政策的, 強制的인 性格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解放과 6.25를 契機로 韓國社會는 많은 變動을 겪었고 個人的 價值觀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個人的 自由意思에 依한 國際結婚의 數는 急激히 增加하였다. 特히 解放以後, 美軍의 進駐와 6.25事變後 美軍을 비롯한 U.N軍의 進駐는 韓國女性의 國際結婚에 決定的인 契機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韓國男子와 外國女子와 結婚하는 경우는 (例가 드물기는 하지만) 外國女子가 韓國으로 들어오는 例가 많고 韓國男子가 外國女子와 結婚하기 爲하여 移住하는 例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國際結婚으로 因한 移民은 모두 韓國女性이다.

解放以後 1952년까지는 統計資料가 充分치 못하고, 1952年以後 1965년까지의 國際結婚의 總數를 보면, 美國 8,048名, 英國 4名

自由中国 19名, 比律賓 16名, 濠洲 4名, 瑞典 11名, 其他国이 7名, 合計 8,111名으로 美国이 絶对多数를 点하고 있다. 表 2에서 1965年度에 国际結婚으로 移住한 総數는 1,748名인데, 여기서 調査对象이 된것은 1,617名이고 1974年度の 移住한 総數는 4,220名인데 여기서는 無作為抽出로 뽑힌 487名이 对象이 되고 있다.

가) 年令構成

国际結婚을 爲한 移民의 年令構成을 보면 表 18, 表 19와 같다.

<表 18 >

年 令 構 成

(1965 年)

年 令	人 数	%	年 令	人 数	%
20 歲 以下	308	19.04	26 歲	99	6.12
21 "	134	8.29	27 "	75	4.64
22 "	179	11.07	28 "	67	4.14
23 "	178	11.01	29 "	61	3.77
24 "	168	10.39	30 "	44	2.72
25 "	140	8.66	30 歲 以上	164	10.15

1965年度の統計値를 보면,結婚으로 인한移民인 만큼 모두가可妊年齡層의 女子임은 勿論이며, 특히 21歲에서 25歲까지가 49.2%로서 가장 많고, 26歲에서 30歲까지가 次位이고, 20歲以下(19.04%)가 31歲以上(10.15%)보다 더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1974年度の 數值를 보면

<表 19 >

年 令 構 成

(1974年度)

年 令	人 數	%	年 令	人 數	%
20 歲 以下	61	12.53	26 歲	33	6.78
21 "	42	8.62	27 "	35	7.19
22 "	33	6.78	28 "	34	6.98
23 "	44	9.03	29 "	22	4.52
24 "	32	6.57	30 "	21	4.31
25 "	32	6.57	30 " 以上	98	20.12

21歲에서 25歲까지가 37.57%로 首位로 나타내고 있으나 65年度의 比率보다는 낮고, 다음이 26歲에서 30歲가 29.78%이고, 74年度는 30歲以上이 20歲以下보다 더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特性이라 하겠다.

2.1. 다) 出生地別分布

여기서의 出生地도 戶籍謄本에서 調査한 것은 勿論이며, 따라

서 本籍地와는 区分된다. 表 20 을 보면 國際結婚을 為한 移住者 中에는 京畿出生者가 많고 서울 慶北, 慶南이 比較的 많다. 契約 移民과 招請移民의 경우에 世帯主中 北韓出生者가 많았던 것과는

<表 20 >

出生地別分布

1965年度

出生地	人 数	百分比(%)	出生地	人 数	百分比(%)
서울	196	12.12	江 原	60	3.71
京 畿	296	18.31	濟 州	60	0.68
忠 北	60	3.71	咸 北	22	1.36
忠 南	120	7.42	咸 南	46	2.84
全 北	110	6.80	平 北	32	1.98
全 南	145	8.97	平 南	49	3.03
慶 北	163	10.08	黃 海	75	4.64
慶 南	170	10.51	国 外	62	3.84

달리, 여기서는 南韓出生者(82.31%)가 北韓出生者(13.58%)보다 훨씬 많다.

1974年度 出生地別分布를 보면 1965年度 統計値와 別差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表 21 <

出生地別分布

(1974年度)

出生地	人 数	百分比 (%)	出生地	人 数	百分比 (%)
서울	65	13.35	江 原	15	3.08
京畿	75	15.40	濟 州	-	-
忠 北	18	3.70	咸 北	1	0.21
忠 南	37	7.60	咸 南	2	0.41
全 北	79	16.22	平 北	2	0.41
全 南	71	14.58	平 南	5	1.03
慶 北	53	10.88	洪 海	7	1.44
慶 南	56	11.50	国 外	1	0.21

다) 現住所別分布

表 22에서 國際結婚으로 인한 移住者の 現住所別分布를 보면 京畿와 서울이 大部分을 占하고 있다. 이 現住所別分布는 駐屯 美軍의 分布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國際結婚으로 인한 移住者の 大部分이 美軍들을 相對로한 慰安婦들이며, 그 相對者도 大部分이 美国軍인들이거나, 軍人으로 韓國에 왔다가 除隊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出国前 現住所는 大部分 美軍駐屯地 域이 많다. 앞에서 살펴본 出生地別分布와는 매우 差異가 있는 바 이는 國際結婚으로 인한 移住者들이 慰安婦가 되기 爲해서

<表 22>

現 住 所 別 分 布

(1965 年度)

現 住 所	人 数	百分比(%)	現 住 所	人 数	百分比(%)
서 울	602	37.23	全 南	4	0.25
京 畿	857	53.00	慶 北	42	2.60
忠 北	2	0.12	慶 南	57	3.52
忠 南	18	1.11	江 原	31	1.92
全 北	4	0.25	濟 州	-	-

国内移動을 經驗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 当年度와 1974年度の 現住所別分布는 表 23 과 같다 .

<表 23 >

現 住 所 別 分 布

(1974 年度)

現 住 所	人 数	百分比(%)	現 住 所	人 数	百分比(%)
서 울	123	25.26	全 南	4	0.82
京 畿	253	51.95	慶 北	35	7.19
忠 北	1	0.21	慶 南	29	5.95
忠 南	6	1.23	江 原	11	2.26
全 北	25	5.13	濟 州	-	-

(라) 職業構成

여기서도 職業은 全的으로 書類上 報告에 依存하였는바, 1965年度 國際結婚으로 因한 移住者의 職業은 無職이 1,565名 (96.8%)으로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고 其他職業이 52名 (3.2%)으로 되어 있다. 無職이 많은 것은 大多數를 點하고 있는 慰安婦들이 無職으로 報告했기 때문이다. 其他職業은 主로 美軍部隊의 從業員(交換手, 打字手, 看護員等)들이 많으며, 美容師, 会社員, 學生이 極小數 包含되어 있다. 明確한 統計의 根拠는 提示할 수 없지만 提出書類를 보면 無職에 屬하는 사람들은 大部分 美軍의 士兵과 結婚한 例가 많고, 其他職業에 屬하는 사람은 美軍의 將校나 外國의 民間人과 結婚한 경우가 많다.

職業만으로 그들의 社会的背景을 評價할 수는 없지만, 國際結婚을 한 사람 中에는 社会經濟的地位가 높고 바람직한 職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別로 없으며 大部分이 職業을 가지고 있지 않고 社会經濟的地位가 낮은 사람들이 많다. 1974年度의 國濟結婚으로 因한 移住者의 職業構成을 보면 다음 表 24와 같다.

職業	名數	率(%)
無職	1,565	96.8
其他職業	52	3.2
合計	1,617	100.0

< 表 24 >

職 業 構 成

1974 年度

職 業	人 員	百 分 比 (%)
看 護 員	3	0.62
美 容 師	4	0.82
教 師	6	1.23
事 務 職	8	1.64
從 業 員 (美軍)	13	2.67
商 業	1	0.21
裁 斷 師	2	0.41
打 字 手	1	0.21
調 理 師	1	0.21
無 職	448	91.99
計	487	100

表 24 를 보면 1965 年의 無職의 數보다는 約 4.9%나 낮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나 別로 큰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其他에 있어서 오히려 職種이 다소 늘었다는 것과 其他의 職業이 좀 많아졌을 뿐이다.

(마) 教育程度

國際結婚者의 社会經濟的地位가 낮은 一面은 教育程度에도 나타난다. 表 25 를 보면 그들의 教育程度가 낮은 사람들이 많다.

<表 25 >

教 育 程 度 別

1965年度

教育程度	人 数	百分比 (%)	教育程度	人 数	百分比 (%)
無 学	403	24.92	高 卒	136	8.41
国 退 (左)	99	6.12	大 退	61	3.77
国 卒	601	37.19	大 卒	29	1.79
中 中 退	99	6.12	專 門 退	1	0.06
中 卒	135	8.35	看 護 学 校	1	0.06
高 中 退	50	3.09	学 院	2	0.12

1965年度の統計를 보면 国卒까지가 全体の 6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그 比率은 작아진다. 教育程度를 높게 報告하는 一般的傾向을 考慮한다면, 實際 教育程度는 이 보다도 낮을 것이다.

國際結婚者의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그 比率은 작지만) 美軍의 将校나 外國의 民間人과 結婚하는 例가 많고 낮을수록 美軍士兵과 結婚하는 사람이 많은 傾向이 있었다. 1974年度の 国卒까지의 統計를 보면 59.34%로서 1974年보다는 教育程度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多少 誇張된 傾向이 있다고 하더라도 教育程度가 높아진 것 만이 事實인 것 같다 (8.89%가 높아 짐)

<表 26 >

教 育 程 度 別

1974年度

教育程度	人 数	百分比(%)	教育程度	人 数	百分比(%)
無 学	45	9.24	高 卒	76	15.61
国 在(退)	11	2.26	專 門 卒(退)	-	-
国 卒	233	47.84	大 在(退)	6	1.23
中 在(退)	18	3.70	大 卒	21	4.31
中 卒	60	12.32	大 学 院	2	0.41
高 在(退)	15	3.08			

(바) 家族關係

家族關係 亦是 그들의 戶籍謄本을 통해서 確認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實際와는 다소의 差異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父母의 生存与否와 家族順位를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1974年의 父母의 生存与否는 資料의 未備로 統計資料로 利用하지 않았고 다만 家族順位만 1965年度와 比較하였다.

이 두가지는 子女의 生活과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表 27 에서 父母의 生存与否를 보면 兩親이 生存한 경우가 54.36%로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주로 20歲~30歲 사이의 사람들이란 点を 考慮한다면 平均水準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中에는 母와 繼母인 경우도 多少包含되어 있었으나 그 數는 確認하지 못하였다. 兩親이 모두 없거나 偏父, 偏母膝下인 사람이

44.34%로서 亦是 不遇한 環境에 處해 있는 사람이 많다.

<表 27> 父母의 生存与否

1965年度

生存与否	人 員 数	百分比(%)
父 母 只 存	1105	6.49
母 只 存	410	25.36
兩 親 俱 存	879	54.36
兩 親 俱 不 存	202	12.49
未 詳	21	1.30

父母生存与否未詳(1.3%)도 亦是 不遇한 環境일 確率이 많다.

우리나라의 家庭에 있어서 家族成員의 役割은 家族順位에 따라서 많은 影響을 받는다 고 생각되는데, 그 一面이 表 28에 도 나타나 있다. 家族順位를 보면 國際結婚者 中에는 長女가 42.93% (1965年度統計) 59.75%(1974年度統計)로서 가장 많고, 次女가 各各 23.69%, 24.85%로서 比較的 많은 편이다. 長女는 딸 中에서는 가장 일찍 成年이 되므로 한 家庭의 生活狀態는 長女에게 가장 먼저 甚하게 反映된다. 뿐만 아니라 父母가 없는 경우에는 동생들을 養育할 義務를 지게 되므로, 國際結婚의 通路인 慰安婦가 될 確率도 크다고 볼 수 있다. 次女의 경우도 長女와 마찬가지로 理由로 생각할 수 있다.

<表 28 > 家族順位

1965年度

家族順位	人 数	百分比 (%)
一 次 女	209	12.93
二 次 女	694	42.93
三 次 女	383	23.69
四 次 女	125	7.73
五 次 女	53	3.28
五女以上	18	1.11
戸 主	83	5.13
未 詳	52	3.22

<表 29 > 家族順位

1974年度

家族順位	人 数	百分比 (%)
一 次 女	291	59.75
二 次 女	121	24.85
三 次 女	53	10.88
四 次 女	11	2.26
五 次 女	5	1.03
未 詳	6	1.23
計	487	100

(4) 目的地別分布

大部分의 國際結婚者의 目的地는 美国이었다 (1965年度)

그러나 1974年度の 國際結婚者中에는 美国이 勿論 大多数를 차지하고 있으나 16.84%가 日本이란 点이다. 이것은 韓日国交 正常化에 따른 日本人의 来往이 빈번할 뿐아니라, 日本人企業体の 韓國에의 進出이 1965년에 비해 훨씬 많다는 事實을 立証해 주고 있는 것이다.

<表 30> 目的地別分布
1974年度

目的地	人員	百分比(%)
美 国	399	81.93
日 本	82	16.84
호 주	1	0.21
카 나 다	1	0.21
태 국	1	0.21
홍 콩	1	0.21
서 독	1	0.21
대 만	1	0.21
계	487	100

3) 國際人養

여기서는 1965年度の 國際入養에 관한 資料만 取扱하였다.

國際入養은 1961年 9月 30日에 公布된 孤兒入養特法の 規定에 依해서 實施되고 있다 이에 依하면 孤兒라 함은 ①扶養義務者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18歲未滿의 者나 ②扶養義務者の 同意를 얻은

18歲 未滿의 者를 말한다.

1965年에 入養으로 因하여 出国한 總數는 684名인데 여기서 調査對象이 된것은 792名이다. 國際入養을 하는 孤兒들을 出生背景에 依하여 分類해 보면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韓國人女性(주로 慰安婦)과 外國男子(주로 美軍) 사이에서 出生한 私生兒

② 韓國人男女사이에서 出生한 私生兒

③ 正式으로 結婚한 韓國人夫婦間에서 出生한 子女로 父母의 許諾을 받은 者

이 3가지 範疇別 數的分布는 分明치 않지만 大體로 ①이 가장 많고 ②가 다음으로 많고 ③이 가장 적은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入養者들을 入養經路에 依해서 区分해 보면 ①孤兒院을 비롯하여 入養業務를 取扱하는 社會事業團體의 交涉에 依하여 入養하는 者 ②國際結婚한 母의 男便에게 入養하는 者(131名), ③個別的인 交涉 或은 接觸으로 入養하는 者의 셋으로 나누어 지는데 ①의 경우가 가장 많고 ③의 경우는 極히 적다.

入養으로 因한 移住者의 年度別分布를 보면 5歲以下가 73.2% (580名), 6歲以上 10歲以下가 16.4% (130名), 11歲以上 18歲以下가 10.4% (82名)로서 5歲以下가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性別構成을 보면 男子가 254名 (32.1%), 女子가 538名 (67.9%)으로서 女兒가 倍가 넘는다. 國的地別로 보면 美國이 圧倒的으로 많고 其他 늘웨이, 스웨덴, 덴마크, 西獨, 캐나다 등이

小數를 點하고 있을 뿐이다. 入養者의 大部分이 孤兒라는 特殊性때문에 出生地나 現住所, 職業, 教育程度, 家族關係等에 關해서는 項目別로 考察할 意味가 없다.

4. 結 言

지금까지 1965年度와 1974年度の 実績을 中心으로 海外移民의 몇가지 特徵을 살펴 보았지만, 調査方法 및 有用한 資料의 制限性으로 그 性格을 充分히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感이 없지 않다. 그러나 部分的으로나마 海外移民의 性格을 糾明하고 그 特徵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移民政策樹立에 參考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集團移住나 契約移住의 경우, 人口를 내보내는 나라의 條件과 받아들이는 나라의 要求條件이 適當한 點에서 一致될 때 移住가 成立된 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移住者의 性格分析과 아울러, 移民実績의 成果與否를 許価하는 現實的인 問題가 있지만, 이는 別途의 視點에서 取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全體的으로 볼때 海外移民의 性格에는 亦是 韓國의 特殊性이 反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國際結婚이나 國際入養은 韓國戰爭으로 因하여 發生된 特殊現象이 反映된 것이며, 契約移民과 招請移民도 戰爭으로 因한 人口의 再分布, 南北이 分斷된 現實的인 與件, 激增하는 人口에 따른 就業構造의 不安定等 諸特殊性이 反映된 것으로 생각된다.

1962年 以後의 実績을 보면 招請移民, 國際結婚, 國際入養等 特殊移民이 大多數를 點하고 있으며, 契約移民은 그 比重이 매우 적다. 따라서 移民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國內人口政策의 適正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期함과 同時에 國威를 宣揚하기

爲하여서는 集團移住나 契約移住에 重点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海外移民의 性格을 좀 더 明確히 밝히기 爲해서는 이러한 書類調査와 併行해서, 移住者가 出國하기 前에 面接이나 質問書를 통해서 調査하는 方法이 더욱 效果的일 것이다.